

정 소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개정 7차 고등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담화표지어 분석

2011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수 정

개정 7차 고등 영어교과서에 나타나는
담화표지어 분석

정 소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이 수 정

인 준 서

이 수 정 의 석 사 학 위 논 문 으 로 인 준 함 .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초록

담화표지어는 의사소통의 한 전략으로 화자의 부족한 언어능력을 보충하기도 하고 선행담화와 후속담화를 일관성 있게 해주어 성공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 영어교육과정의 목표가 문법 위주의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변화됨에 따라 의사소통의 장애 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담화표지어의 학습은 중요하다.

본 논문은 Schiffrin(1987)가 분류 한 열한가지 담화표지어 *oh, well, and, but, or, so, because, now, then, y'know, I mean*을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7차 개정 영어교과서의 대화 예문을 대상으로 담화표지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첫째로 교과서에서 나온 담화표지어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담화표지어 *oh, well, and, but, so, then*에 비해 *or, because, now, y'know, I mean*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로, 담화표지어의 기능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각 담화표지어의 다양한 기능 중 특정 기능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well*은 여섯 가지의 다양한 기능 분류에도 불구하고 한 기능에만 치우쳐 사용되고 있어 다양한 기능의 담화표지어의 학습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셋째로, 담화표지어 위치를 조사한 결과 *or, so, then*을 제외한 나머지 담화표지어들은 모두 문두에 위치하고 있었다. 문두 빈도수가 높은 이유로 인접쌍에서 선행담화의 흐름을 중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는 점에서 후속담화에서 담화표지어가 문두에 자주 발생한 것 같다.

모든 분석을 통합한 결과 영어교과서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담화표지어는 고르게 사용되고 있었으나 *or, because, now, y'know, I mean*와 같은 담화표지어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고, 기능도 치우쳐 사용이 되고 있어 다양한 담화표지어의 학습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영어교과서에 다양한 기능들의 담화표지어가 담긴 대화 예문을 포함하여 담화표지어 사용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목 차

논문개요

제 1장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논문의 구성 -----	2
제 2 장 이론적 배경 -----	3
2.1. 담화표지어 정의 -----	3
2.2 담화표지어 기능 -----	4
제 3장 외국어 교육에서의 담화 표지 교육의 중요성-----	39
제 4장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담화 표지어 분석-----	45
4.1 분석 대상-----	45
4.2 데이터 집적과 분석-----	48
4.3 각 교과서 별 담화표지어의 기능에 따른 빈도수-----	50
4.4 ICE-GB와 영어교과서의 담화표지어 빈도수 비교-----	75
4.5 담화표지어의 위치-----	76
제 5장 결론 및 제언-----	84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담화표지어의 기능 분류 -----	5
<표 2>	각 담화표지어의 세부 기능 분류 -----	5
<표 3>	분석 대상 영어 교과서 3종 -----	45
<표 4>	영어 교과서 분석 대상 -----	46
<표 5>	영어 교과서별 담화 표지어의 빈도수-----	51
<표 6>	기본교과서의 담화표지어의 빈도수-----	52
<표 7>	학습활동책 담화표지어의 빈도수-----	52
<표 8>	Oh의 기능별 빈도수-----	53
<표 9>	Well의 기능별 빈도수-----	58
<표 10>	And의 기능별 빈도수-----	60
<표 11>	But의 기능별 빈도수-----	61
<표 12>	Or의 기능별 빈도수-----	62
<표 13>	So의 기능별 빈도수-----	63
<표 14>	Because의 기능별 빈도수-----	65
<표 15>	Now의 기능 별 빈도수-----	67
<표 16>	Then의 기능별 빈도수-----	68
<표 17>	Y'know의 기능 별 빈도수-----	71
<표 18>	I mean의 기능별 빈도수-----	73
<표 19>	담화 표지어가 들어간 말뭉치 빈도수-----	75
<표 20>	영어교과서 별 담화표지어의 위치-----	76
<표 21>	코퍼스에서 사용된 말차례 시작어 빈도수-----	79

그림 목 차

<그림 1> 컨코던스(CONCORDANCE) 프로그램-----	48
<그림 2> ICECUP Ⅲ의 초기화면 -----	49
<그림 3> 단어 입력 -----	49
<그림 4> 담화표지어 well의 빈도수 결과 -----	50

제 1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언어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어 형태의 습득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의 숙달이다.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본다면 언어 학습의 최종 목표는 의사소통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습득한 언어를 적절히 적용하여 표현하는 데 있다(배두본, 1999). 이처럼 학습자가 언어 구조를 자세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상황에서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지 못한다면 그 학습에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고등 영어 7차 개정 교육과정은 과거의 언어 형태에 초점을 두는 교과과정 목표와는 달리 유의미하고 유창성이 갖는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수 학습 측면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지도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평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듣기 능력과 읽기 능력과 함께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영어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이 되는 담화표지어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담화표지어가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발화에서 자주 사용되고, 유창성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화자의 부족한 언어 능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을 도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의사소통의 장애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국가에 의해 공인된 교과서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고 학습하는 교과서 대화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대화문이 담화표지를 얼마나 적절히 포함하고 있는지를 연구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서 대화 예문에서 나타난 담화표지어의 빈도수, 기능 그리고 위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논문의 구성

본 본문의 내용은 제 2장에서 담화표지어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담화표지어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보고, 정보처리의 기능, 응답의 기능, 담화연결어의 기능, 원인과 결과의 기능, 시간 부사의 기능, 정보와 협력의 기능 여섯 가지로 나눠 예문과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담화표지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4장에서는 고등학교 영어 기본교과서와 학습활동교과서 대화 예문을 토대로 담화표지어의 빈도수, 기능, 위치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5장에서는 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 및 결론을 도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2장은 교과서 분석에 기준이 될 담화표지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담화표지어의 정의와 기능 등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정리하였다.

2.1 담화 표지어의 정의

담화표지어는 학자마다 담화표지어를 정의하는 것이 다르고, 기능을 분류하는 기준이 달라 절대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Schourup(1985)은 *like, well, y'know*에 주목하여 화자가 이미 발화를 하기 전에 폭로 되지 않은 화자의 생각을 표시한다고 하여 담화표지어를 ‘불변화사(particles)’로 보았다. Blakemore(1987)은 *and, after all, you see, but, moreover, furthermore, so* 담화표지어가 추론적인 관계(inferential connections)를 표현하고 담화의 일관성에 기여한다고 하여 담화표지어를 담화 접속어 (discourse connectives)라고 보았다. Schiffrin(1987)은 담화 표지어의 범위를 보다 넓게 보아 *oh, well, and, but, or, so, because, now, then, y'know, I mean*을 조사하면서 그 위치와 기능들을 주목했다. 담화 표지어가 문두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발화와 발화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본 반면 문중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는 종종 휴지나 잘못된 발화(false start)를 동반하면서 화자로 하여금 다음 발화를 준비하도록 해 줄 뿐만 아니라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이후 Fraser(1993)는 화용론

적 기능에 초점을 맞춰 담화 표지로서의 기능이 문장 속에서 그들이 유일한 기능이 되며 전형적으로 발화 처음위치에 나타나며 의미를 만들어 내지 않고, 선행담화와 후행 담화간의 연속적인 담화 관계를 보여주는 화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화용적 범주(pragmatic category)로 그 정의를 내렸다.

이처럼 담화표지어를 정의함에 있어 학자마다 담화표지어의 범위와 명칭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Schiffrin(1987)은 담화표지어의 정의와 기능을 따르기로 한다. Schiffrin은 아래와 같이 담화표지어의 정의를 내렸다.

"Discourse markers are linguistic elements which bracket utterances and whose use is sequentially dependent i.e, dependent on characteristics of both prior and upcoming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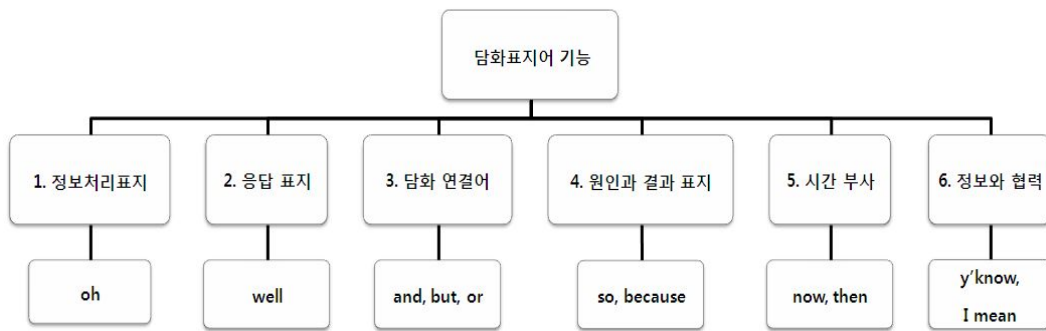
담화표지어는 선행담화와 후속담화 사이에서 연속적인 담화 관계를 갖게 하면서 동시에 담화에 일관성을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 내렸다.

2.2 담화표지어의 기능

열한가지의 담화표지어들은 크게 여섯 가지의 기능으로 분류되어지는데, 그 기능들은 크게 정보처리(information management)의 기능, 응답(response)의 기능, 담화 연결어(discourse connective)의 기능, 원인과 결과(markers of cause and effect)의 기능, 시간부사(temporal adverbs)의 기능, 정보와 협력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의 기능으로 나뉜다. 각 항목에 따라 열한가지 담화표지어 *oh, well, and, but, or, so, because, now, then, y'know, I mean* 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담화표지어의 기능 분류



<표 1>처럼 *oh*는 정보 처리 표지의 기능을 하고, *well*은 응답표지의 기능을 한다. *and, but, or*은 담화 연결어 기능을 하며, *so*와 *because*는 원인과 결과의 기능, *now*와 *then*은 시간 부사의 기능, 그리고 *you know*와 *I mean*은 정보와 협력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표 2>는 열한가지의 담화 표지어의 세분화된 기능들을 표로 정리한 표이다.

<표 2> 각 담화표지어의 세부 기능 분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oh	구정보인지	신정보인지	선행 정보 이해	오류 수정	감정적반응	강한 긍정	강한 부정

well	선행담화에 대한 불충분한 응답	선행정보의 추가 요청	질문 회복 요청	질문 변형하여 요청	오류수정	인용	
and	선행담화 체제로의 복귀	질의 항목 연결	추가 정보요청				
but	기능적 대조	오류 수정					
or	포괄적 선택	비동의	자신의 주장 설명				
so	결과, 추론	말차례 전환					
because	증거	동기					
now	비교	목록	화자의 입장 변화				
then	동일한 사건	연속적인 시간 나열	선행 정보 확인	목록 나열			
y'know	어떤 정보의 공유 확인	어떤 정보의 공유 전제	일반적인 사실, 상투적인 문구				
I mean	선행 담화의 개념 확장	선행담화의 의도에 대한 설명	화자의 어조	오류 수정			

지금부터 <표 2>에서 정리한 분류표를 바탕으로 각 담화표지어의 기능에 대

해 예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겠다.

2.2.1. oh

*Oh*는 담화표지어로서 정보처리(information management)의 기능을 하는데, 구정보 인지, 신정보 인지, 선행 정보 이해, 오류수정, 감정적 반응, 강한 긍정, 강한 부정으로 크게 일곱 가지로 분류되어 진다.

첫째로 *oh*는 화자로부터 선행담화의 정보를 들은 청자는 그 정보가 자신이 이미 아는 정보임을 깨닫는 상황에서 후속담화와 함께 사용된다. 예 (1)에서 처럼 Debby는 Henry가 살았던 지역을 알고 있었지만 잠시 잊은 채, Henry에게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질문 했고, Henry가 그녀에게 답을 하는 순간 Debby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깨닫고 나서 *oh*를 사용하고 있다.

(1) Debby : Where'd y'grow up? You were talking about
[the old neighborhood.] **Oh** sure. I knew that.

Henry : [Strawberry Mansion]

(Schiffrin 1987:90)

둘째로 *oh*는 선행담화의 정보를 들은 청자는 그 정보가 새로운 정보임을 깨닫는 상황에서 후속담화와 함께 사용된다. 예(2)에서처럼 Debby는 Irene의 자녀가 셋인 줄 알고 있었는데, Irene으로부터 그녀의 자녀가 넷임을 새롭게 깨닫는 상황에서 *oh*를 사용하고 있다.

(2) Debby : So what, you have three kids?

Irene : I have four. [Three boys] and a girl.

Debby : [Four kids.] **Oh** I didn't know that.

(Schiffrin 1987:93)

셋째로, 담화표지어 *oh*는 화자가 준 선행 정보 이해(recognition display)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아래의 예에서 Zelda, Debby, Jack은 해산물 요리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3) Zelda : We ate at the- we ate at the: eh that Shanty?

Seafood? Shanty?

Debby : **Oh** yeh, I've heard that's good.

Jack : I was supposed to play elegy on the violin.

Do you remember then? All kids would=

Freda : **Oh**, yes!

Jack : = play that.

Freda : **Oh**, that's the first!

(Schiffrin 1987: 91)

위의 예 (3)번에서처럼 'Oh, yes!'라고 하며 익숙한 정보를 입수하고, 그것에 대하여 'Oh, that's the first!'라고 하며 조금 더 세분화된 정보를 부가하여 답

을 함으로써 선행 정보의 이해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로, *oh*는 화자 자신이 말한 오류를 스스로 알아차린 후에 오류 수정 (repairs)시 사용된다. 예(4)은 Jack이 자기 발화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후 자기 수정(self-initiated repair)을 하는 예이다. Jack은 Freda에게 폴란드의 역사를 알려주는데 폴란드가 러시아에 의해 분단되는 시점에 대해 잘못 말한 것을 알아차리고, *oh*를 사용하여 자기 수정을 하고 있다.

(4) Jack : I think it was in seventeen: seventeen, or seventeen
fifty five, I'm not sure when. Eh: **oh** I'm wrong.
Seventeen seventeen.

(Schiffrin 1987: 75)

Jack은 발화 중에 자신이 잘못 말했다고 'I'm wrong'이라 하며 그의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리고, 그 스스로 'seventeen seventeen'이라고 하며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다섯째로, *oh*는 청자가 선행담화를 듣고 감정을 표출할 때 사용된다. 아래의 예문을 보면 Debby의 강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Henry가 듣고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장면이다.

(5) Debby : He found out that um the kid had been killed in a
gang fight [[the nighthbefore] So=

Henry : [[Sharp intake of breath]Oh Go:d.]

Debby : = it just ended like [that.]

Henry : [Tsk.] Tsk. Pshew.

(Schiffrin 1987: 96)

여섯째로 *oh*는 화자의 말에 강한 긍정 시에도 사용된다.

(6) Debby : Well I think there's a lot of competition between girls. In an *all* girls school. More than well- more academically anyway.

Freda : **Oh** yes. **Oh** yes. They're better student I *do* believe that.

(Schiffrin 1987: 95)

Debby는 Freda와 Jack에게 여학생들의 경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을 한다. 이를 들은 Freda는 강조표현 'do'를 사용하여 'I *do* believe that' 이라는 말과 함께 강한 동조를 위해 'oh yes. oh yes'라고 하며 *oh*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담화표지어 *oh*는 논쟁의 담화에서 선행정보에 대한 강한 부정의 입장을 표시할 때 사용된다. 예(7)에서 Freda와 Jack은 전에 살던 이웃과 새로운 이웃의 청소습관에 대하여 비교하는 내용이다. Jack은 전 이웃에 대하여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은 Freda가 전 이웃을 방어한다. 그러자 Jack은 Freda에 반박하며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7) Jack : Yeh, she never did any thing. Rose never did anything. huh? No she didn't.

Freda : But she had that girl.

Jack : **Oh!** Help don't do these things! c'mon. Y'know they just wipe this off, and wipe that off, and underneath it's dirty. Y'know it's help! And why shouldn't they? It's your house, not theirs.

(Schiffrin 1987: 95)

더 나아가 화자가 어떤 주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편향적인 생각을 표출하고 청자가 그에 반박을 할 때 'Oh, c'mon!'를 사용한다. Zelda와 Irene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Henry는 자기주장을 고집하고 있는데, 여기서 Zelda는 Henry가 지나치게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고 있음을 표출하기 위해 'Oh, c'mon!'을 사용하고 있다.

(8) Irene : I'm not that family orientated. Like they are.

Henry : She should be. She's got a nice family. She's got lovely=

Zelda : Well, She really-wait=

Henry : = children.

Zelda : = a minute she doesn't have any sisters,

Irene : I'm not talikin' about my children.

Henry : Well you should make it so, it's good.

Zelda : **Oh**, c'mon!

(Schiffrin 1987: 97)

이처럼 담화표지어로서의 *oh*는 담화에서 정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정보 입수에서부터 주관적인 평가까지 다양한 기능을 한다.

2.2.2 well

담화표지어로서의 *well*은 담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응답, 요청-승낙 인접쌍(adjacency-pair)에서 사용되어지며 응답표지어(makers of response)의 기능을 하고, 선행담화와 후속담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일관성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선행질문의 모호한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질문을 회복하거나, 했던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와 같은 요청표현에서도 사용된다. 또한 *well*은 발화의 오류를 수정하는 자기 수정, 인용하는 기능도 한다.

첫째로, 담화표지어 *well*은 질문-응답쌍(question-answer adjacency pair)에서 선행담화에 불충분한 응답 시 발생된다. 불충분한 응답 시 사용되는 *well*은 다시 네 가지의 상황으로 재분류 된다. 먼저 응답자가 필요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9) Debby : Where d'y'think they're coming from?

Irene : **Well**, I don't know. I really have no idea.¹⁾

(Schiffrin 1987: 106)

둘째로, 선행 질문을 듣고,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well*을 사용하는데, 10번 예문의 확인(confirmation)과 11번 예문의 명료화(elaboration)요청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10) Debby : How did you get the name of the doctor you're using now? Where'd y'find him?

Zelda : **Well**, y'mean our family doctor?

(11) Jack : Then I worked for the fruit store. Yeh, selling eggs. I think I was fifteen then.

Debby : **Well** was that a full time job, of like a..

(Schiffrin 1987:120)

셋째로, 선행 질문을 다시 회복시킬 때 *well*을 사용한다. 아래의 예에서 Debby는 Zelda의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고, 이전에 자신이 했던 질문을 다시 회복시키며 *well*을 사용 하고 있다.

1) Schiffrin(1987)의 책에는 *well*이 없었지만 본 논문에서는 *well*을 첨가하였다.

(12) Debby : How did you get the name of the doctor you're using now? Where'd y'find him?

Zelda : Well y'mean our family doctor?

Debby : Yeah. **Well** how did y'find him?

(Schiffrin 1987:120)

넷째로, 응답자가 선행 질문에 대한 정보를 만족시켜주지 않을 때, *well*과 함께 다시 질문을 다르게 변형(rephrasing)하여 질문한다. Debby는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질문을 하는데, Henry가 원하는 응답을 해 주지 않자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well*과 함께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다.

(13) Debby : **Well** some people say that y'know just talikng to a good friend or : somebody in the family is just as good as telling to a pshychiatrist.

[response not included]

Well d'you-d'you know anyone who you could talk to like that?

[response not included]

Well who-who are some of the people that you would want to confied in? if you were having. .

Henry : If I would, I would go to a rabbi.

(Schiffrin 1987:121)

다섯째로, 자기 응답(self-response)시 *well*을 사용한다. 화자는 발화하는 도중에도 *well*을 사용하며 오류수정을 한다.

(14) Look at Bob's par-eh father an'mo-**well** I don't think his
father accepted it-his mother.

(Schiffrin 1987:123)

마지막으로, 이전의 담화 내용을 원래대로 인용할 때에도 *well*을 사용한다. Zelda는 Henry와 셋째 아이를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상황에서 Henry가 한 말을 인용할 때 *well*을 사용하고 있다.

(15) And I said em 'Would you like to have another baby?' He
says, 'Now?!' I said ' Yeh:!' And he says, '**Well** I don't
know.'

(Schiffrin 1987 : 112)

이처럼 담화표지어로서의 *well*은 담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응답, 요청-승낙 인접쌍(adjacency-pair)에서 사용되어지고, 선행질문의 모호한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질문을 회복하거나, 했던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기와 같은 요청표현, 발화의 오류를 수정하는 자기교정, 인용하는 기능을 하며 선행담화와 후속담화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고 일관성 있게 만든다.

2.2.3. and, but, or

*and, but, or*은 통사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 화용론적 측면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통사론적 측면에서 *and, but, or*은 선행담화와 후속담화를 등위적으로 연결하는 담화등위접속사(discourse coordinator)기능을 한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and*는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but*은 대조됨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or*은 선택적 의미를 나타내는 담화접속어(discourse connective)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측면에서 *and*는 담화체제가 일련적으로 연속되고 있음을, *but*은 화제가 반대로 변화되거나, 중심화제로 돌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or*은 청자로 하여금 선택표지의 역할을 하며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효과를 높인다.

2.2.3.1 and

*And*는 위의 표와 같이 후속담화가 선행 담화의 계속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담화접속어(discourse connective)역할을 한다.

첫 번째 담화체제에서는 A화자의 선행담화 후에 B가 선행담화에 대한 부차적인 언급을 하여 하나의 담화체제를 완성하지 않고 더 큰 범위의 담화를 제시한다. A의 담화 단위의 예로는 이야기(stories), 설명(explanations), 논증(arguments)이 있다. B 담화의 예로는 A담화를 듣고 조금 더 부차적인 언급

으로 명확한 요청(requests for clarification)을 한다. 그리고 B의 부차적인 질문에 대하여 A가 응답을 하고, *and*를 사용하여 선행대답으로 돌아간다. 아래의 예 (16)에서 Sally는 Zelda가 살았던 West Philly 지역을 묻고 있다.

(16) Sally : You lived in West philly? Whereabout?

Zelda : a. Well, I was born at 52nd and em...tsk...oh : I forgo-well.....I think its 52nd and Chew.

b. **And** um... and uh I grew up really in the section called Logan.

c. **And** then, I went into the service, for the two years,

d. **and** then when I came back, I married... I-I-I got married.

e. **And** I - then I lived at uh 49th and Blair. which is [West Ph-]

Sally : [Where's that]

Zelda : f. It's right off of 49th and [Main]

Sally : [Oh.] Oh yeh. yeh.

Zelda : That's where I lived.

g. **And** then we moved here.

(Schiffrin 1987:142)

Zelda는 자신이 살았던 지역을 a부터 e까지 지역을 나열(locational transition)하고 있다. Sally가 마지막 지역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부차적인 질문을 하자, Zelda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나서 g에서처럼 *and*를 사용하여 그녀가 이전에 하고 있었던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다.

두 번째 담화체제에서는 *and*가 질의 항목(question agenda)에 있는 질문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가령 A가 한 질문을 B가 대답하고 다시 A는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위해 *and*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7) Sally : a. Could I have both of your names, first. T'start with.

Zelda : Okay. Go ahead.

Irene : Irene Bloom.

Sally :b. **An:d...**

Zelda : Zelda Freed.

Sally : Okay.

c. **And** your address is : what?

(Schiffrin 1987:146)

사회언어학자인 Sally는 인구 통계학 조사를 Irene과 Zelda에게 하고 있다. a와 c질문에서처럼 Irene과 Zelda로부터 이름과 주소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다. Sally가 두 명의 이름을 조사한다고 하였을 때 Zelda는 'Go ahead' 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의 질문을 두 명이 답변하겠다는 동의가 전제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b에서 Sally가 'An:d...'라고 하였을 때 질의 항목에 대하여 Zelda도

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c.에서처럼 ‘And’를 사용하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번째 담화체제에서 and는 후속담화에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elaboration)을 할 때 사용된다. 예를 들어 Sally의 질문에 Zelda는 대답을 한다. 그리고 Zelda의 대답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할 때 and가 사용된다.

(18) Sally : a. What was the first job that you had, when you got out of school?

Zelda : I worked in a : um coffe em.... eh coffee manufacuring. They used to eh buy the coffee green, and uh- and I worked as the eh billing clerk.

Sally : Uhhuh.

b. **and** when was that ?

Zelda : eh : I gradu-nineteen:-nineteen forty.

(Schiffrin 1987:146)

a 에서와 같이 Sally는 Zelda에게 첫 번째 직업을 묻고 있는데 이 질문을 질문 1로 본다면 Zelda의 대답은 응답 1이 될 수 있다. 그리고 Sally는 b처럼 응답 1과 관련하여 추가적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는 대답과 관련된 질문이 되기 때문에 질문 1'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담화표지어로서의 *and*는 선행담화와 후속 담화를 등위적으로 연

결하고, 후속담화가 선행 담화의 계속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알 수 있다.

2.2.3.2 but

담화 표지어 *but*은 선행담화와 후속담화의 대조적인 관계임을 나타내거나 선행담화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능적 대조 역할을 하고 자기 발화의 수정 시에도 사용된다.

첫째로, *but*은 기능적 대조의 기능을 한다. 아래의 예와 같이 Debby는 Ira가 North Philadelphia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Ira에게 확인 질문을 하는 상황이다.

(19) Debby : And you were born in North Philadelphia.

Ira : a. No. I was born in uh in-in South Philadelphia.

b. **But** I moved to North Philadelphia when I was a year old.

(Schiffrin 1987 : 159)

Ira는 Debby의 질문에 자신은 South Philadelphia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Debby의 잘못된 정보를 a.에서처럼 수정해준다. 하지만 담화를 완료시키지 않고 *but*을 사용하여 b.에서 Debby가 가정했던 지역인 North Philadelphia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but*을 사용하여 Debby가 말

한 North Philadelphia지역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 줌으로서 기능적 대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but*을 사용함으로써 요청된 답변 뿐 만이 아니라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적 대조를 함으로써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체면 안전 효과 (face saving effect)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but*은 자기 발화의 수정(self-repairs)시에도 사용된다. 자기 발화 수정의 예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예로 Jack은 Soviet Union의 경제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상황에서 1920년대의 특정한 정책 이름을 잘못 말한다. 하지만 그는 바로 *but*을 사용하여 정책 이름을 수정하고 있다.

- (20) a. It was called N.E.P.
- b. It was a little before R.N-N.R.A.
- c. But they called it N.E.P.

(Schiffrin 1987 : 166)

b.에서 R.N을 잘못 말을 하고 N.R.A로 자기 수정을 하고 있고, 그는 c.에서 *but*을 사용하여 N.E.P라고 말한다.

2.2.3.3 or

*Or*는 담화에서 선택적 표지(option marker)로서 사용되거나, 선행담화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설명 할 때 사용된다.

첫째로, *or*은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면 Jack은 미국의 영화가 삶의 실제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데 현실성의 부재라는 일반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예를 들고 있다.

- (21) Jack : a. I'm- I'm speaking how kind everybody is on the movie.
- b. **Or** uh... how a poor working girl is out looking for a job, with a hundred and ninety dollar suit on her back!

(Schiffrin 1987:177)

둘째로, *or*은 선행 담화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된다. 아래의 예는 Zelda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는 Henry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장면에서 *or*이 사용되고 있다.

- (22) Zelda : a. Yeh. But wait: it doesn't mean because they're not of the safe religion that the're - they're eh gonna be terrible.
- b. **Or** if they are of your religion that thins are gonna work out well,
- c. it's the person...*too*.
- d. So it takes *both*.

(Schiffrin 1987:178)

Zelda는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문제이거나 둘 다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Henry에게 반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로, 자신의 담화 속에서 확인(clarification)을 하는 *or*의 기능이 있다. 아래의 예는 Freda는 딸이 있다면 Freda와 Debby가 다녔던 여자 고등학교는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 (23) Freda : a. If I had- had a young- if I had a daughter,
 b. I'd never send her the Girls' high.
- Debby : c. Y'think its too uh...
- Freda : d. I would never send there-to
 e. no no no it's a very good school
 f. But I- **or** eh for that matter I would never send
 a boy, to all boys' school, either.
 g. So it's not that mean Girls' High or Central are
 gonna be- I just don't -I think it's an unhealthy-
 it's an unhealthy situation.
 h. I think boys and girls should be together.

(Schiffrin 1987:180)

Freda는 딸을 여고에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던 중 Debby가 오해를 할 여

- c. **cause** the younger one's gonna come for dinner
- d. **cause** he's working in the neighborhood.
- e. **So** that's out.

(Schiffrin 1987:204)

위에서 Zelda는 자신의 아들을 보려던 계획이었는데 무산되었던 설명을 하고 있다. Zelda의 이유 c.는 변화된 계획 b.의 사실적 '이유'다. 그리고 d.는 c.와 관계된 이유를 비슷하게 설명 하고 있다. 결국 c.와 d.의 '결과'로 e.가 나온다. 두번째로, 증거와 추론으로서 *because* 와 *so*가 있다.

(25) Henry :Sometimes it works. Because there's this guy Louis Gelma, he went to a big specialist. [story] He said it would've been a little bit more, he would've strangled to death ! **So** doctors are well they're not God either.

(Schiffrin 1987:206)

위의 예에서 Henry는 3명의 의사가 잘못 진단한 것을 옆집이웃이 바르게 진단한 이야기를 증거로 제시하며 '의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결론을 뒷받침 하고 있다. 여기서 *because*는 '증거'로 *so*는 '추론'으로 나타난다.

셋째로, 동기와 행동으로서의 *because*와 *so*가 있다.

(26) Zelda : Hen, we're off the subject.

Irene : Yeh, let's get back, **because** she'll never get home.

(Schiffrin 1987:207)

*So*는 담화표지어로서 선행담화의 결과, 추론, 행동을 설명해줄 뿐만이 아니라 말차례를 교환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담화 표지어로서 참여자 전환 (participation transitions)의 기능도 한다. 또한 말차례 변화 (turn-transition) 장치로서 상대방의 말차례에 기회를 주는 것을 암시하거나,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말이 곧 끝날 것이라고 암시를 하는 기능을 한다.

(27) Henry : a. And we'll bet on the horses... which is very good.

Debby : b. **So** y'do that once a year? With the - all the men? Oh. No maybe a

c. couple times a year!

Debby : d. Oh great! Yeh. Why spend it all at once?!

Henry : e. yeh. Get eight hundred dollars every year or something like that.

f. A thousand dollars a year.

g. **So** : eh.....but we buy beer and ... cake and that's- we spend it out our won money.

h. **So** : eh:

Debby : I. So, when Henry's gone, what do you do?

(Schiffrin 1987 : 219)

Debby는 b.와 d.에서와 같이 질문을 요청했고, Henry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g.에서처럼 *so*를 사용하여 말차례를 양보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Debby가 말차례를 받지 않자 Henry는 자신의 말차례를 지속하며 막 끝낸 주제 전에 했던 이전의 주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그리고 h.에서 또 다시 *so*를 언급하고 마침내 Debby가 말차례를 이어 받는다. 또한 I.에서 *so*의 사용은 화제 변환(a topic transition)뿐만 아니라 참여자 변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5 now와 then

*Now*와 *then*은 지시적 의미(deictic meaning)가 영향을 미친 담화표지어이다. 담화표지어로서의 *now*는 후속담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 시간 지시어를 사용하여 주의를 살피게 함으로서 화자 진행(speaker progression)역할을 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then*은 선행담화와 후행 담화사이의 시간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2.2.5.1 now

*Now*는 담화표지어로서 비교, 목록과 같이 연속(series)적인 담화에서 사용되

기도 하고 말차례 취하기 같은 화자 입장(speaker orientation)의 변화의 기능을 한다.

첫째로, 담화표지어 *now*는 대상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아래의 예는 Zelda가 Debby의 부모님 집과 Zelda의 집을 비교 하고 있는 장면이다.

(28) a. It's nice there.

b. **Now** our street isn't that nice.

(Schiffrin 1987 : 231)

여기서 *now*는 담화에서 비교가 시간이라기보다는 장소의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부사의 역할을 하지 않고 담화표지어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담화에서 어떠한 목록들을 나열할 때 *now*를 사용한다. 아래의 예문을 들 수 있는데, a. 문장은 Zelda와 Henry가 전에 방문했던 레스토랑을 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now*가 사용되고 있고, b. 문장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를 나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now*를 사용하고 있다.

(29) Debby : a. **Now** where else did we go. Um...

b. **Now** another one, eh : what's the other one that
eh: they made a lot of money with. And
everybody jumped out of their seats. Uh :
Exorcist.

Debby : Oh.. The Exorcist.

(Schiffrin 1987:238)

셋째로, *now*는 화자 입장(speaker orientation)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설명에서 질문, 설명에서 수사어문문, 이야기에서 평가, 말차례 취하기로 다양한 변화 가운데에서 사용 된다.

2.2.5.2 then

담화표지어 *then*은 담화에서 선행담화와 후속담화의 시간을 지시해주는 기능을 하고, 선행담화와 후속담화사이의 시간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즉, 아래의 표와 같이 선행 담화와 후속담화의 동일한 사건시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연속적인 사건시간을 보여줄 수 있으며, 선행정보를 토대로 한 확인을 요청하는 담화나 어떠한 목록을 나열 할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첫째로, 담화표지어 *then*은 동일한 사건시간(continuous event time)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즉, 담화표지어 *then*은 선행담화와 후속담화를 연결해주는 대응적(anaphoric)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래의 예와 같이 Debby는 Ira에게 그녀의 부모님께서 언제 팬실베니아에 정착하게 되었는가하고 질문을 하는 장면이다.

(30) Debby : a. So, when did they come here?

Ira : b. 1906. Um : around 1906.

Debby : c. How old were they **then**?

Ira : d. Um: my dad was about twenty tw. my mom was
uh: a-about twenties

(Schiffrin 1987:249)

Ira는 부모님께서 이사를 온 것이 1906년도라고 답한다. Debby는 그때 당시 부모님의 나이를 재질문을 하고 Ira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를 답한다. 여기에서 *then*은 지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어난 시간은 이미 담화에 서 1906년 이라고 말해졌고, Debby의 재질문은 그 시기에 부모님의 나이를 묻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Debby가 c.에서 사건 시간을 언급함과는 상관없이 *then*은 선행담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담화표지어 *then*은 '그리고 나서'라는 뜻을 가지며 연속적인 사건 시간(successive event time)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아래의 예를 보면 Zelda가 월요일 아침에 피곤한 이유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연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 (31) a. So uh : I wanted t'show equal ti-give equal time.
b. So first, I played with the b-the twins, who're two and a half.
c. And uh I went on the beach with them.
d. **Then** when they went ho-off eh for their nap, I:-
e. **then** I gave the younger son uh... attention.

- f. So it was quite hectic on Saturday.
- g. And we were really ti:-
- h. and **then** we babysit Saturday night, let my younger son
go out.
- I. And the baby slept in our house.
- j. So that by 10:30 I was really tired.
- k. And I went to bed hhh.

(Schiffrin 1987:251)

Zelda의 b.와c., d.와e., h.와i.의 세 가지의 일을 통해 왜 Zelda가 피곤 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then*이 d와 h에서 사용되면서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됨을 알 수가 있다.

셋째로, *then*은 '그러면'이라는 뜻으로 선행정보를 근거로 해서 확인요청 시에도 사용된다. Sally는 Zelda가 학교를 몇 년 다녔는지 질문을 하고 있고 Zelda는 이에 12년을 다녔다고 답하는 장면이다.

(32) Sally : a. Um, how many years of school did you get a
chance to finish?

Zelda : b. Twelve.

Sally : c. Twelve. So you went through high school, **then**?

Zelda : d. Umhmm.

(Schiffrin 1987)

c.에서처럼 Sally는 Zelda의 교육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며 *then*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로, *then*은 나열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33) Debby : How many people are in the team?

Irene : Four.

Debby : So it's just t-the two of you : and ...the t-yeh.

Irene : The two couples, yeh. And **then** the kids have their own team.

Debby는 Irene의 볼링 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다. Irene의 주제는 볼링 팀의 구성원이다. 그 주제 아래에서 소주제가 두 가지로 나뉘지는데 첫 번째 소주제는 짝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하여 이다. 이처럼 소주제가 나열 될 때 *then*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now*는 다음에 나올 내용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서, 점진적 진행(progression)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then*은 선행 담화와 말하는 화자의 담화의 이전의 담화 시간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2.2.6 y'know and I mean

2.2.6.1 y'know

담화표지어 *y'know*는 화자와 청자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하

기 위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보여주어 화자가 청자를 설득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첫째로, 청자가 어떠한 정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의 공유를 확인을 할 때 사용된다. 아래의 예에서 Jack은 조직적 종교(organized religion)를 좋아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 (33) Jack : a. And when you're a cripple, you're a prej-
b. in other words... they're cripples because they're so
religious is what-is the point I'm trying to make.
c. In other words they're sick. Religiously.
d. Like the:...**y'know** what Haisidic is?

Debby : e. Umhmm.

Jack : f. The Hasidic Jew is a cripple in my eyes, a mental
cripple.

(Schiffrin 1987:269)

Jack은 유대교(Hasidic Jews)를 언급하면서 종교에 대한 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Jack은 듣는 청자 Debby가 유대교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치 않자 d.에서처럼 'y'know what Haisidic is?'이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e.에서 Debby가 알고 있다는 표시의 'Umhmm'이라는 응답을 얻고 f.에서처럼 Jack은 자신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간다.

둘째로, *y'know*는 어떤 정보를 화자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도 사용이 된

- (35) Henry : a. A mitzvah a day will keep the doctor away.
 b. So if I can do this mitzvah today, maybe I don't
 have t'go t'the dentist tomorrow?
 Zelda : c. No [y'still] have t'go Henry, tomor[row]
 Henry : [hhhhhhh] [hhhh] that's a
 thought thought, isn't it hhhhhh
 Henry : e. **Y'know** they say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Schiffrin 1987 :275)

Henry는 e.에서처럼 'an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를 사용하여 고정적인 표현(formulaic expression)을 언급할 때 *y'know*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2.6.2 I mean

*I mean*은 담화표지어로서 화자가 담화에서 개념의 확장(expansion of ideas)임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담화가 너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 다시 선행담화의 의도에 대한 설명(explanations of intention)을 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선행담화가 의도한 어조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화자 자신의 의도에 대한 자기 교정을 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선행담화의 개념을 확장 시킬 때 *I mean*이 사용된다. 아래 예와 같이 Ira는 인종 간 통합(racial integration)이 증가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념을 확장시키는데 *I mean*을 사용 하고 있다.

- (36) a. But I think um ten years form now,
b. It's going to be much more liberal.
c. I could see it in my own job.
d. I mean, when I started working for the government, there were no colored people.
e. And today eh...uh... twenty five, thirty percent, forty percent of the people I work with are- are colored.

(Schiffrin 1987:296)

Ira는 c.처럼 그의 직장에서의 흑인의 고용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자유로워져 감을 찾았고 그 생각을 d.와 e.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확장시키고 있다.

둘째로, *I mean*은 선행담화의 의도(intention)에 대한 설명 시 사용되는데 화자가 하는 말이 너무 간접적이어서 청자가 화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화자가 다시 자신의 의도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아래의 예에서 Zelda는 Hen을로부터 칭혼을 받는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a.에서처럼 Henry는 칭혼에 대한 의미전달을 간접적으로 했다가 d.에서 다시 'i mean'을 사용하여 그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37) a. He says, 'Oh, I wish you could come with me!'
 b. And I said- I was very pro-proper, and prim!
 c. And I said, 'Oh, I couldn't go away with you.'
 d. And he says, '**I mean** let's get married!'
 e. And I said, 'Oh okay!'

(Schiffrin 1987:297)

셋째로, 화자 자신의 어조를 의도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I mean*을 사용한다. 다음의 예는 화자의 어조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I mean*의 예문이다. 화자 Jack은 왜 천주교를 이탈리아인보다 아일랜드인이 더 믿는지 설명하고 있다.

- (38) Jack : a. Cause the Italian don't have t'prove he's a-a
 Catholic, he has the Pope.
 b. The Irishmen never made it-they-Pope yet.
 c. and they used t'try so hard.

Debby : d. Umm [hhh]

Jack : e. [No] **I mean** it I-I'm serious about this.

(Schiffrin 1987:297)

Jack은 a.부터 c.까지 자신이 의도한 심각한 어조가 d.에서 Debby의 웃음에 방해를 받자, e에서 의도된 어조를 명확히 제시하여 진지한 대화의 분위기를

다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I mean*은 대체 수정(replacement repairs)시에도 사용한다.

(39) Sally : Were your parents pretty strict or...

Irene : Not at all. And not t'my disadvantage. **I mean** not
t'my advantage as I- I see it now because I got
everything I wanted them.

(Schiffrin 1987:301)

(40) But oh I don't know the rabb-I **mean** I know him, but

I'm-I-not activity, as far as I'm concerned.

(39)번의 예에서 Irene의 'disadvantage'는 *I mean*과 함께 'advantage'로 대체 되고 있고, (40)번의 예에서처럼 'I dont' know'가 *I mean*과 함께 'I know him'으로 대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I mean*은 화자가 담화에서 내용이 더 세분화 되어 확장됨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고, 담화가 너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할 때 다시 선행담화의 의도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한다. 또 화자가 의도한 어조로 자신의 담화를 상대방이 옳게 해석 할 수 있게도 해주며 마지막으로 화자 자신의 의도에 대한 자기 교정을 표시할 수 있다.

제 3장 외국어 교육에서의 담화표지어 교육의 중요성

최근의 의사소통 능력의 추세는 의사소통의 구조적, 인지적 특징들 보다는 사회적, 문화적, 화용적 시사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실제 언어 수업이 행해지는 교실에서는 언어 사용자들 사이에서 담화, 상호작용, 화용론 협상 등의 문제에 초점을 가지고 유의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실제 대화와 비슷한 대화문을 통해 대화를 지배하는 규칙을 알고, 어떻게 상대방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 어떻게 특정한 화제를 시작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화를 회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대방이 말하는 중에 끼어들고 상대방의 말을 수정해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언어 능력을 배워야 한다 (Brown 2000). 따라서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실제 대화와 비슷한 예문들을 통해 위의 언어 능력들을 자연스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아래의 예문처럼 실제 구어에서 상당량의 담화표지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41) Amy : Hi, Bob, how's it going?

Bob : **Oh**, so-so.

Amy : Not a great weekend, huh?

Bob : **Well**, far be it from me to criticize, but I'm pretty miffed about last week.

Amy : What are you taling about?

Bob : I think you know perfectly well what I'm

talking about.

Amy : **Oh**, that... How com you get so bent out of shape over something like that?

Bob : **Well**, whose fault was it, huh?

Amy : **Oh**, wow, this is great. Wonderful. Back to square one. For crying out loud, Bob, I thought we'd settle this before. Well what more can I say?

(Brown 1994: 274)

위의 대화처럼 실제적인 대화에서는 자연스러운 담화(a casual register), 구어(colloquial language), 감정언어(emotional charged language), 생략(ellipsis), 비꼼(sarcasm)과 함께 담화표지어생략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과정에서 실제 대화와 비슷한 예문들을 다루어 시간을 끌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Uh, well, I mean* 사용법을, 대화의 흐름을 유지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Uh huh, right, yeah, ok, hm* 사용법을, 화자의 말에 집중을 시키고 싶을 때 *so* 등의 의사소통 전략을 학습하고 연습한다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진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사 소통 능력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원어민과 같은 유창성이다. McCarthy(2010)가 담화표지어의 사용이 유창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아래의 두 예문은 캠브리지 영어 능력 시험(ESOL)에서 초급 레벨인 KET(Key English Test)와 높은 레벨인 CAE (Cambridge

Certificate in Advanced English) 지원자들의 회화 시험을 전사한 담화문이다.
아래의 예문은 아침식사 습관에 관해 두 명의 여성 지원자가 서로에게 각각
질문을 하고 있다.

(42) <Candidate 01> **Er** when do you have breakfast?

<Candidate 02> I have my breakfast er at er seven o'clock'

<Candidate 01> Where do you have breakfast?

<Candidate 02> **Er** in my kitchen in my house.

<Candidate 01> In what room?

<Candidate 02> In the kichen

<Candidate 01> **And** do you have coffee or tea?

<Candidate 02> **Er** tea.

<Candidate 01> **Er** what do you eat?

<Candidate 02> I eat toast and a cup of tea.

<Candidate 01> How many days er how many times a day do
you have it?

<Candidate 02> **Er** two times.

[4 seconds pause]

<Candidate 02> Sorry I don't understand you. Repeat the
sentence please.

<Candidate 01> How many times a day do you have
breakfast?

<Candidate 02> One time a day of course!

위의 담화문에서처럼 두 지원자 모두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고 알맞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차례의 시작은 거의 WH-로 시작을 하고, 주저 지시어(hesitation markers)가 거의 Er만 사용이 되고 있고, 청자반응 신호도 없으며 2) 휴지가 4초 이상으로 너무 길게 일어나기 때문에 담화가 다소 인공적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반면 다음 예에서처럼 높은 레벨의 지원자의 담화에서는 흥미롭게도 앞의 담화와는 반대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원자들은 비록 문법적인 오류를 많이 나타내고 있지만 굵은 글씨로 표시된 원어민과 같은 담화표지어 사용의 말차례 구조와 청자반응신호의 사용으로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유창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43) [Names have been omitted to preserve candidate anonymity;
the text has been abridged for illustrative purposes]

<Examiner> First of all, we'd like to know a little bit about
you. Erm where do you both live?

<Candidate 01> I live in (place name) in South Korea yes.

<Candidate 02> **And** I live in (place name). It's in Switzerland
and it's near Zurich.

2) 청자반응 신호(back-channels)이란 대화 중에 청자가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m-hm','yeah','yes,quite','surely','I see','that's true'등을 말한다. 이들은 홀로 발생하거나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이들의 범주에 청자의 관심과 주의집중을 표시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화자가 말 순서를 계속 취하게 하는 짧은 질문이 포함된다.

<Examiner> (Candidate name)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English?

<Candidate 01> **Well actually** I study English mm in 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for six years around for six years.

<Examiner> Different classes. Good. Now I'd like to ask each other something about things you particularly like about living in this country and entertainment and leisure facilities in this area.

<Candidate 02> Erm I like to go erm to see a movie.

<Candidate 01> **Mm.**

<Candidate 03> I see a lot of them since I've been here and I like to go to pubs and +

<Candidate 01> **Ah.**

<Candidate 02> + together with friends and =

<Candidate 01> = **Yeah me too actually.**

(McCarthy 2010 : 11)

위의 예문처럼 유창한 화자의 담화에서 보여지는 *and*나 *well*의 담화표지어의 사용은 참여자의 대화를 매우 상호작용적이고, 자연스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결과를 얻었다(McCarthy 2010).

이처럼 담화표지어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 중 하나로 대화의 목

적을 달성시켜주는데 필요하며, 상황적 맥락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시켜주는 담화장치이다. 예로 거절이나 요구, 혹은 불만을 교환할 때, 발화를 잠시 연기시키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사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어색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well, uh, oh, ah*와 같은 담화표지어가 그 공간을 메우게 되고, 이는 후에 오는 발화를 매끄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위하여 담화표지어 학습은 꼭 필요하다.

4장 분석 대상 및 연구 결과

4.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개정 7차 고등 영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가 과거 교과용 도서와 크게 다른 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기본교과서'와 함께 수준별 학습을 위한 보조교과서 '학습활동책'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기본교과서'에서는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만을 실어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공통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어학습활동책'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학습자를 만족해야 하는 기존의 교과용 도서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별 보조 교과서로서, 기본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수준별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개정 7차 영어 교과서 중 3종, '기본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을 포함한 총 6권을 선별하여 대화문에 담화 표지어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으며, 위치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교과서'와 '학습활동책'을 함께 지칭할 시 '영어교과서'로 지칭하겠다.

<표 3> 분석 대상 영어 교과서 3종

	저자	출판사	종류
A	이찬승 외	능률교육	기본교과서(Textbook)

A - I	이찬승 외	능률교육	학습활동책(Activities)
B	이병민 외	두산동아	기본교과서(Textbook)
B - I	이병민 외	두산동아	학습활동책(Activities)
C	이인기 외	천재교육	기본교과서(Textbook)
C - I	이인기 외	천재교육	학습활동책(Activities)

7차 개정 영어 교과과정에 사용되는 '기본교과서', '학습활동책' 모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부분 등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듣기와 말하기를 포함한다. 이는. 이는 본 연구의 초점이 담화 표지어의 사용이 포함되어진 의사소통 능력과 관계된 듣기와 말하기의 대화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기본교과서'와 '학습활동책'에서 분석대상으로 했던 부분은 아래 표와 같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분석한 대상을 정리 한 것이다.

<표 4> 영어 교과서 분석 대상

	분석대상
A	Listen in & Speak out Real-life listening
A-I	Listen in & Speak out

B	Listen & speak Dialog
B- I	Listen & Speak plus
C	Listen in Speak out Wrap up
C- I	Listening Speaking

기본교과서 A는 Listen in & Speak out 과 Real-life listening 부분에서, 학습활동책 A- I 은 Listen in & Speak out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기본교과서 B는 Listen & speak Dialog, Time to Talk에서, 학습활동 책 B- I 에서는 Listen & Speak plus에서 나오는 담화표지어를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교과서 C에서는 Listen in, Speak out, Work together에서, 학습활동책 C- I 에서는 Listening과 Speaking 부분에서 담화 표지어를 분석했다.

영어 교과서의 주요 학습 내용 구성 순서에 있어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으로 비슷한 순서였지만, 각각 부분별 학습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A 교과서는 Listen & Speak out 부분에서는 주제(topic)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 Real-life listening 부분에서는 인터뷰, 중계방송, 광고, 다큐멘터리, 퀴즈 쇼, 뉴스 등의 실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상황 회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 교과서는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본문 시작에 Listen & Speak 부분이 있으나, A, B, C 교과서 중에 유일하게 교과서 본문 속에 하나의 대화 예문(Situational Dialogue)이 실려 있었다. 이 대화예문을 학습하며 중요 표현들을 습득하고 이를 응용한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Time to Talk 부분에서는 특정한 상황이 담긴 삽화와 대화문을 주고 짝과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C 교과서에서는 A, B 교과서와는 다르게 Listen In 부분과 Speaking 부분을 나눠 구성되어 있고, Work together 부분에서는 상황을 주고 말하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4.2 데이터 집적과 분석

데이터의 집적은 개정 7차 교육과정 교과서 3종에서 분석 대상의 부분을 직접 컴퓨터 텍스트 파일(txt.)에 입력하여 코퍼스 자료를 만들었고 그 코퍼스 자료를 토대로 WCONCORD 프로그램³⁾을 이용하여 담화표지어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1> 컨코던스(CONCORDANCE)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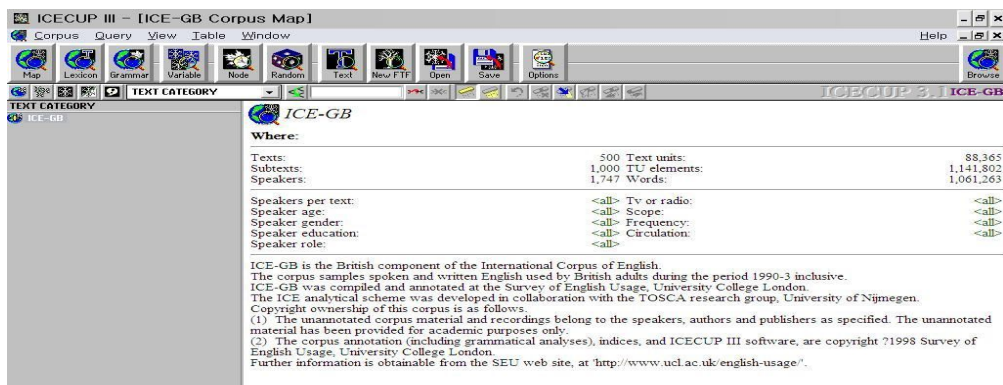
Line	Speaker	Word	Context	File
1.	B:	Well	, not exactly.	교1.TXT
2.		well	, but I want to be a musician	교1.TXT
3.	A:	well	against Italy.	교1.TXT
4.	A:	Well	, I don't think I am.	교1.TXT
5.	B:	Well	, I wish I were good at sport	교1.TXT
6.	M:	Well	, I think it has a bad connect	교1.TXT
7.	M:	Well	, there are so many dishes t	교1.TXT
8.	W:	Well	, now I often drink water.	교1.TXT
9.	M:	Well	, i don't like it.	교1.TXT
10.	B:	Well	, I think it looks simple.	교1.TXT
11.	B:	Well	, I like the tall girl.	교1.TXT
12.	B:	Well	, we need to think more abou	교1.TXT
13.	W:	Well	, so far so good, but some c	교1.TXT
14.	W:	Well	, for example, I have to take	교1.TXT
15.	B:	Well	, for example, I don't unde	교1.TXT
16.	B:	Well	, for example, I don't unde	교1.TXT

3) WCONCORD 프로그램은 텍스트의 집합체인 코퍼스를 컨코던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정 어휘가 실제로 쓰인 예를 모두 찾아 사용된 키워드를 가운데로 정렬한 예시문 자료이다. 텍스트 자료 파일(txt.)을 입력하여 특정한 어구 검색, 빈도수 검색, 문두, 문중, 문미 정렬 검색, 연어 검색 등에 사용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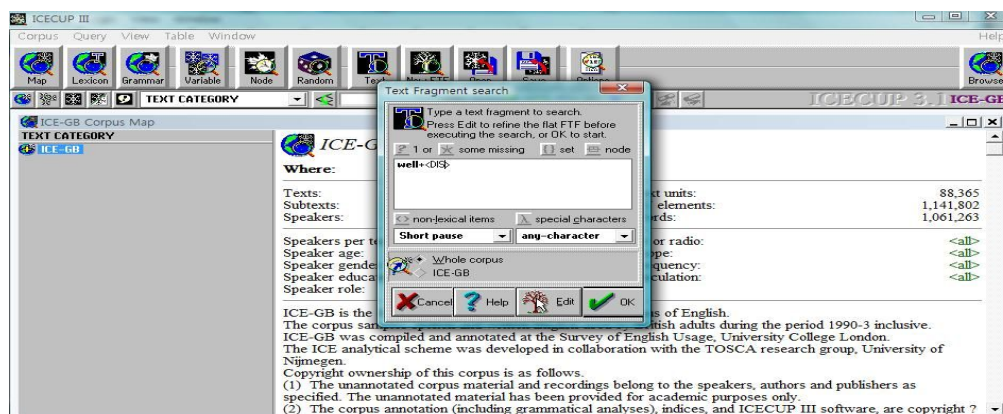
위의 그림과 같이 분석하고자 하는 A, A-I, B, B-I, C, C-I 텍스트 파일을 입력하고, 찾고 싶은 단어나 어구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삽입된 예가 나열된다. 그 예가 들어간 대화문을 텍스트 파일에서 찾아 그 기능을 각각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어와 실제생활 회화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어를 비교하고자 영국의 백만 단어 코퍼스 프로그램인 ICE-GB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이 ICE-GB 바로 초기 화면이다. ICE-GB에서 빈도수를 추출하는 과정을 그림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ICECUP III의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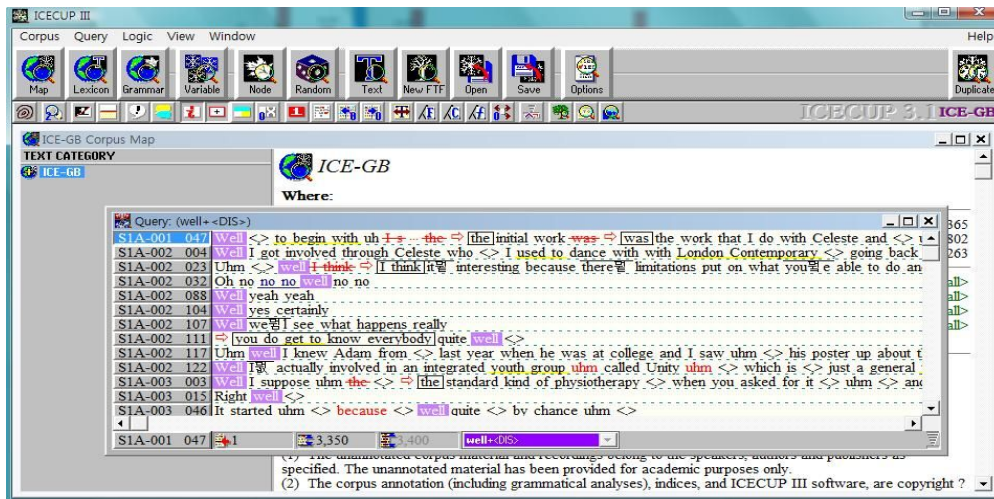


<그림3> 단어 입력



위의 <그림 2>의 ICE-GB 초기 화면에서 Text 툴을 누르고, <그림 3> 처럼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기입한다. 후에 node 툴을 눌러 담화표지어만 분류하는 <DIS>를 추가로 기입하면 아래 <그림 4>에서처럼 담화표지어 기능을 하는 검색 단어의 문장과 빈도수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 담화표지어 well의 빈도수 결과



4.3 각 교과서 별 담화표지어의 기능과 빈도수

Schiffrin(1987)은 열한가지의 담화표지어를 여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정보처리지표(marker of information management)로서의 *oh*, 반응 지표(marker of response)로서의 *well*, 담화 연결어 (discourse of connectives)로서의 *and*, *but*, *or*, 원인과 결과지표(marker of cause and effect)로서의 *so*, *because*, 시간 부사 (temporal adverbs)로서의 *now*, *then*, 정보서의 참여지표

(information and participation) *you know, I mean*으로 분류하였다. 본 장은 열한개의 담화 표지어가 교과서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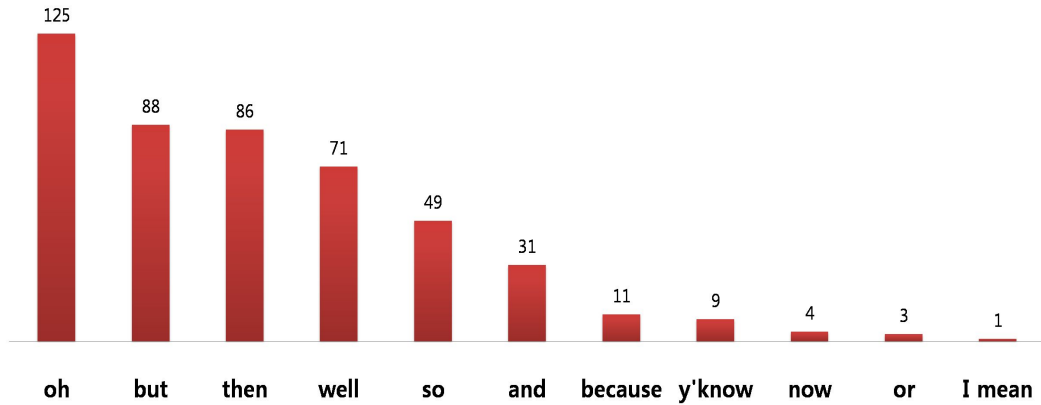
각 교과서에 사용된 담화 표지어의 빈도수는 아래 <표 5> 과 같다.

<표 5> 영어 교과서별 담화 표지어의 빈도수

	A	A- I	B	B- I	C	C- I	합계 (%)
oh	11	13	19	42	10	30	125 (26.2)
well	12	25	7	15	1	11	71 (14.9)
and	3	12	1	0	9	6	31 (6.5)
but	3	8	10	34	15	18	88 (18.4)
or	1	0	1	1	0	0	3 (1.0)
so	3	9	3	20	7	7	49 (10.3)
because	2	4	1	0	3	1	11 (2.3)
now	0	0	0	1	1	2	4 (0.8)
then	11	27	5	19	10	14	86 (18.0)
you know	1	0	3	5	0	0	9 (1.9)
I mean	0	0	1	0	0	0	1 (0.2)
합계(%)	47(9.8)	98(20.5)	51(10.7)	137(28.7)	56(11.2)	89(18.6)	478 (100)

그리고 아래의 그래프는 열한가지의 담화표지어를 높은 빈도수 순위대로 막대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담화표지어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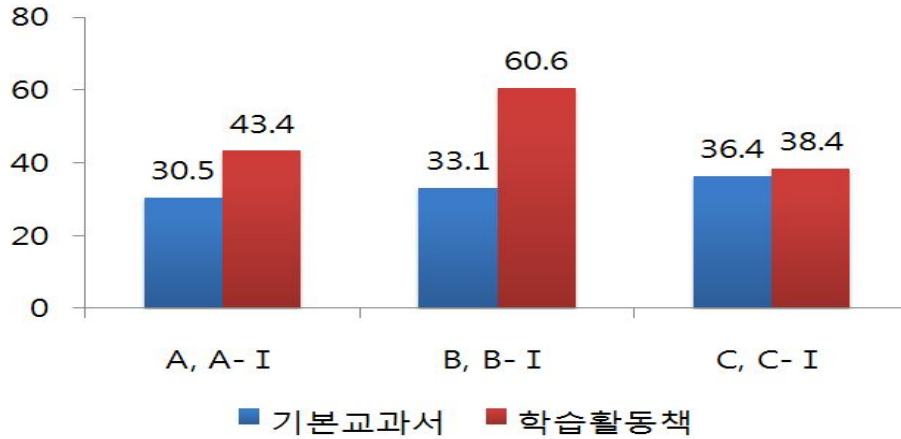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래프처럼 개정 7차 영어교과서에서 나타난 담화 표지어는 *oh, but, then, well, so, and, because, y'know, now, or, I mean*으로 다양하게 관찰 되었다. *Oh, then, but, well, so, and*는 최고 빈도수가 125회, 최저 빈도수가 31회 이상으로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because*는 11회, *y'know*는 9회, *now*는 4회, *or*은 3회, *I mean*은 1회로 빈도수가 낮았다. 아래의 표<표 6>과 <표 7>는 기본 교과서와 학습활동책 별 담화표지어 빈도수를 나타낸 표이다.

<표 6> 기본교과서의 담화표지어의 빈도수

	A	B	C	합계
담화표지어 수	47 (30.5)	51 (33.1)	56 (36.4)	154 (100)

<표 7> 학습활동책 담화표지어의 빈도수

	A-I	B - I	C - I	합계
담화표지어 수	98 (43.4)	137 (60.6)	89 (38.4)	226(100)



위의 그래프처럼 A, B, C 기본교과서 모두 담화표지어가 30%대로 고르게 발생하고 있었으나, 학습활동책 B - I에서 60.1%로 높게 발생하였고, A-I에서 43.4%, C - I, 38.4% 순으로 발생하였다.

4.3.1 oh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oh의 기능별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8> Oh의 기능별 빈도수

oh								
	① 구정보 인지	② 신정보 인지	③ 선행정보이해	④ 오류수정	⑤ 감정적 반응	⑥ 강한긍정	⑦ 강한부정	합계

A	-	7	1	-	3	-	-	11
A- I	-	10	-	-	3	-	-	13
B	11	1	3	-	2	-	-	19
B- I	21	4	9	-	3	4	1	42
C	1	3	1	-	1	2	2	10
C- I	10	6	8	-	-	3	3	30
합계	43	31	22	0	12	9	6	125

기본교과서와 학습활동책에서 나타난 담화표지어 *oh*는 선행담화에 구정보의 인지가 43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신정보 인지는 31회, 선행정보의 이해 22회, 감정적 반응이 12회, 강한 긍정 9회, 강한 부정이 6회 순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류 수정 기능은 영어교과서 여섯 권 모두에서 한회도 발생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교과서에 사용된 여섯 가지의 기능들을 대화예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미 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인지하는 구정보 인지의 예는 아래와 같다. B와 G는 학교 옆의 새로운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으며 G가 레스토랑 위치에 대하여 설명하자 G는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인지하고 *oh*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4) B : Do you know the new restaurant near school?

G : You mean the little restaurant next to the post office?

B : Nope. The one across from the fire station.

G : **Oh**, I've seen it on the way home. But I've never been there.

B : You should try the food there. Everything on the menu is so great.

(B- I)

신정보 인지의 예는 아래와 같은데 A와 B가 서로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B가 이전에 몰랐던 A의 성격을 알게 되는 상황에서 *oh*가 사용됨을 알 수 있다.

(45) A : What do you think I'm like?

B : You seem to be sociable.

A : What makes you think so?

B : Because you easily make friends. Right?

A : Well, I don't think I am. In fact, I'm rather shy. I prefer being alone.

B : **Oh**, I didn't know that. (A- I)

아래의 예도 마찬가지로 신정보 인지에서 *oh*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는 새로운 정보에 대하여 알고, B에게 새로운 질문을 추가로 질문 한다.

(46) A : What does Changho usually use the Internet for?

B : He usually uses it to search for information.

A : **Oh**, does he? Does he know any good site?

B : Yes, he recommended www.allaboutphysics.org.

A : How do you spell it exactly?

B : It's www.a-I-I-a-b-o-u-t-p-h-y-s-i-c-s.org.

A : I see. I'll visit the site today. Thanks.

(A- I)

*Oh*의 기능 중 세 번째로 선행정보이해의 기능이 있는데, 아래의 예는 종묘에 가는 길에 대하여 A와 B가 하는 대화이다. A는 종묘 가는 길을 물어보고 있고, B는 가는 길을 알려 준다. 그리고 A는 B가 가르켜 준 길을 이해하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한 정거장 더 가야 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서 자신이 그 정보를 이해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47) A : Excuse me. How can I get to Jongmyo?

B : Let me see. We're now at Myeongdong Station. Take subway line number E and transfer to line number 3 at chungmuro Station.

A : **Oh**, it's one stop from here.

B : Right. Then go for two stops from Chungmuro Station and get off at jongno 3-ga Station.

A : I see. Thank you.

(A-1)

다음은 감정적 반응과 관계된 예이다. M은 자신이 잘못된 파일을 보낸 것을 알아차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oh*와 함께 사용함으로서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48) W : Alex this is Sarah.

M : Hi, sarah. What's up?

W : I'd like to ask you something. Are you sure you sent me
the pictures of the Leaning Tower of Pisa?

M : Of course. I found some good pictures and e-mailed them
right away last night.

W : I think you've made a mistake.

M : What do you mean?

W : In your mail there were only pictures of the Eiffel
Tower.

M : **Oh**, I'm terribly sorry. I think I attached the wrong files.
I'll send them again.

(C)

다음의 예는 상대방으로부터 적극 공감을 나타낼 때 사용된 *oh*이다. W는 남수가 매우 화난 것을 M에게 말하고 M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고 재질문을 하고, W는 그의 얼굴이 붉게 변해 있어서라고 한다. 이에 M은 W에 적극 동감을 하며 *oh*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 W : I'm sure Nam Su is very angry.

M : How do you know that?

W : Look at his face! It's red.

M : **Oh**, you're right. He looks really angry.

(C)

하지만 상대방의 말에 동감하지 않을 때도 *oh*가 사용이 되는데, W가 벌에 쏘인 것을 알고 M은 그 이유를 물었더니 W는 벌이 날아가도록 쫓아냈다고 했다. 이 행동에 동감하지 않은 M은 *oh*를 첨가 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다.

(50) M : I've never seen such a big sting.

W : **Oh**, I didn't know how poisonous a bee's sting is.
(B)

4.3.2 well

교과서에서 사용된 *well*의 기능별 빈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Well의 기능별 빈도수

well							
	① 선행담화에 불충분한 응답	② 선행정보 추가 요청	③ 질문 회부 요청	④ 바꾸어 말하기 (Rephrasing)	⑤ 오류수정 (repair)	⑥ 인용	합계
A	12	-	-	-	-	-	12
A-I	25	-	-	-	-	-	25
B	7	-	-	-	-	-	7
B-I	15	-	-	-	-	-	15
C	1	-	-	-	-	-	1
C-I	11	-	-	-	-	-	11

합계	71	0	0	0	0	0	71
----	----	---	---	---	---	---	----

영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담화표지어 *well*은 71회로 선행담화에서 원하는 대답을 후속담화에서 완벽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하지만 질문 회복 요청, 바꾸어 말하기, 오류수정, 인용 등은 한회도 발생하지 않았다. 교과서에 가장 많이 발생한 선행담화에 불충분한 응답의 기능을 한 *well*이 발생한 예를 살펴보겠다.

(51) A: Who do you think is the right person for our shampoo ad?

B: **Well**, I like the tall girl.

A: You mean the girl with straight hair?

B: Right. She'll make a perfect model.

A: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Let's choose her.

B: Hmm. I think the girl with wavy hair is better.

A: **Well**, we need to think more about this.

(A)

A와 B는 샴푸 광고 모델을 찾는 장면에서 A가 B에게 샴푸광고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질문을 하자 B는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well*을 사용하여 유보를 하다가 모델을 찾는다. A는 그 모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하지만 B는 또 다른 모델을 지목을 한다. 이 대목에서 A의 반응은 *well*을 사용하며 비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52) W : Good evening. Are you ready to order?

M : Yes please. I think I'll start with the onion soup for an appetizer.

W : What would you like to eat for the main course?

M : **Well**, would you make a suggestion?

W : Sure. What about the fried fish? It comes with a green salad.

M : Great! I'll have that.

W : Anything to drink?

(A- I)

레스토랑에서 W는 주문을 받고 있고, M은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W가 메인 코스를 질문하였더니, W는 선행담화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다시 *well*을 사용하여 자신의 대답을 지연시키며, 음식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well*을 사용하였다.

4.3.3 and

교과서에 나타난 *and*의 빈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And의 기능별 빈도수

and

담화 연속	
A	3
A- I	12
B	1
B- I	-
C	9
C- I	6
합계	31

후속담화가 선행 담화의 계속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은 A에서는 3회, A- I에서는 12회, B교과서에서는 1회, C교과서에서는 9회 C- I에서는 6회 사용되었으며 B- I 교과서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53) G : Did you hear about the earthquake in Pakistan?

B : Yes, I saw the news on TV. How terrible!

G : **And**, it came all of a sudden. People were sleeping when the earthquake hit.

B: That's why people are afraid of earthquakes.

(B)

G는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B에게 질문하고 있고, B가 그 정보를 알자 자신이 하던 말을 이어가며 *and*를 사용하고 있다.

4.3.4 but

교과서에 나타난 *but*의 빈도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1> But의 기능별 빈도수

but	
기능적 대조	
A	3
A- I	8
B	10
B- I	34
C	15
C- I	18
합계	88

위의 표에서처럼 선행 관심사로 돌아가려는 기능적 대조 기능 역할을 하는 but은 A에서는 3회, A- I에서는 8회, B에서는 10회, B- I에서는 34회 C에서는 15회 사용되었으며 C- I에서는 18회 사용되었다. 아래의 예는 but의 기능적 대조를 보여주는 대화문이다.

(54) W : Brian! Turn off the TV now. You have homework to do.

B : **But** this is my favorite show, Mom. Could I watch it for 10 more minutes? Please.

W : OK. **But** make sure to turn it off after 10 minutes.

B : Of course. Thanks, Mom.

(B)

W는 B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그만두고 숙제를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B는 but을 사용하여 요청에 불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W는 10분만 보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겠다는 말에 OK라고 허락을 하지만 다시 but을 사용하

여 W의 입장으로 돌아가 10분 후에 텔레비전을 끌 것을 당부하며 선행 관심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4.3.5 or

교과서에 나타난 or의 기능별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2> Or의 기능별 빈도수

or				
	① 포괄적 선택	② 비동의	③ 자신의 주장 설명	합계
A	1	-	-	1
A-I	-	-	-	0
B	1	-	-	1
B-I	1	-	-	1
C	-	-	-	0
C-I	-	-	-	0
합계	3	0	0	3

위의 표에서와 같이 담화표지어로서 or는 A교과서, B교과서, B-1교과서에서 한번 씩 총 세 번 사용되었다. 교과서에 나온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예는 or이 포괄적 선택으로 사용된 예이다. M은 W에게 네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에 경의를 표하고, 손에 장애가 있었던 것이 선천적인지 물어보고, or을 사용하여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들어 포괄적 선택을 하도록 질문한다.

(55) M: Thanks for the interview, Miss Lee Hee-ah. It's amazing
 you play the piano with only four fingers Is it a physical
 disability from birth, **or** did you have accident?

W: It's from birth. I was born with two fingers on each hand
 and no legs below the knees.

(A)

4.3.6 so

So의 기능별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 So의 기능별 빈도수

SO			
	① 결과, 추론	② 말차례 전환	합계
A	1	2	3
A- I	3	6	9
B	1	2	3
B- I	9	11	20
C	6	1	7
C- I	7	-	7
합계	27	22	49

위의 표에서처럼 so는 결과, 추론, 그리고 말차례 전환 기능 모두 세 교과서
 에서 상대적으로 고루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의 예문은 아버지
 M과 딸인 W와 잇고 온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W는 집에 파일

을 놓고 온 것 같다고 말을 하자, M은 파일을 가져다 달라는 메시지를 추론하고, so를 사용하여 가져다 줄 지를 묻고 있다.

(56) M : Julie?

W : Yes, Dad.

M : What's the matter?

W : I left behind an important paper on my desk. I'm supposed to make a presentation with it this afternoon.

M : **So**, you want me to find and take it to your office?

W : Exactly. You will find it in a white file.

M : Okay, Dad. How can I get to your office?

W : Take the subway to Pine Station and go out Exit 3. You will find a blue building. When you get to the entrance, call me.

W : All right.

(C)

4.3.7 because

*Because*의 기능별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표 14> *Because*의 기능별 빈도수

because			
	① 증거	② 동기	합계
A	2	-	2
A- I	-	4	4
B	-	1	1
B- I	-	-	0
C	1	2	3
C- I	1	-	1
합계	4	7	11

위의 표에서와 같이 증거와 동기의 기능을 가진 *because*의 사용은 증거가 4회, 동기가 7회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다음의 예는 *because*가 증거의 기능을 잘 보여준 예인데, A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B는 사회적인 사람 같다고 하며 *because*를 사용하여 그 추측에 대한 증거를 말하고 있다.

(57) A : What do you think I'm like?

B : You seem to be sociable.

A : What makes you think so?

B : **Because** you easily make friends. Right?

A : Well, I don't think I am. In fact, I'm rather shy. I prefer being alone.

B : Oh, I didn't know that.

(A)

증거 이외에도 동기가 *because*이 후에 나오는데 (58) 예에서처럼 요가클럽을 가입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B가 설명하고 있다.

(58) A: What kinds of club activities are you interested in?

B : I'm interested in the yoga club,

A : Will you join that club?

B : Yes, I'm going to submit my application today.

A : Why do you want to join that club?

B : **Because** I want to improve my health. (A- I)

4.3.8 now

Now의 기능별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표 15> Now의 기능 별 빈도수

now				
	① 비교	② 목록	③ 화자의 입장변화	합계
A	-	-	-	0
A- I	-	-	-	0
B	-	-	-	0
B- I	-	-	1	1
C	-	-	1	1
C- I	-	-	2	2
합계	0	0	4	4

Now는 C 기본 교과서와, B-1, C-1교과서에서 사용이 되어졌는데 A교과서에는 사용이 되어 지지 않았다. 기능상으로는 화자의 입장변화의 기능으로만 사용되어지고, 비교, 목록의 기능은 6권 모두 다 발견이 되지 않았다. Now는 대화상에서 입장변화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된다.

(59) W : Are you having a good time?

M : Yes, I am. It's a nice party. People are friendly and the
food is delicious.

W : I'm happy to hear that. **Now**, Let's get some dessert.

M : That's a good idea. What's this? It looks tasty.

W : Try some. It's really delicious.

M : Um...I like it. Can you tell me more about it?

W : It's made from rice flour, and has a sweet filling.

M : Oh, I see.

(C-1)

위의 예는 생일 파티 후 집으로 돌아온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대화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생일 파티를 잘하고 왔는지 질문하고, 아들은 즐거웠다고 응답한다. 어머니는 *now*를 사용하여 화제를 변환하여 디저트를 권한다. 여기서 대화의 주제가 *now*를 사용함으로써 생일 파티에서 디저트로 대화의 주제가 변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9 then

*Then*의 기능별 빈도수는 아래와 같다.

<표 16> *Then*의 기능별 빈도수

then					
	① 동일한 사건시간 (그때)	② 연속적인 사건시간 (그리고 나서)	③ 확인요청 (그러면)	④ 목록나열 (그리고)	합계
A	1	4	6	-	11
A- I	4	15	8	-	27
B	-	-	5	-	5
B- I	3	-	16	-	19
C	1	3	6	-	10
C- I	-	4	10	-	14
합계	9	26	51	0	86

위의 표에서처럼 *then*은 주로 확인요청 시에 사용되어 졌고 연속적인 사건 시간 나열과 동일한 사건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목록나열 기능은 사용되지 않았다. 아래의 예문은 동일한 사건 시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then*의 예를 보여 준다. 여행 정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에게 B가 타지마할 여행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비행기티켓을 예약이 토요일로 예약되어 B는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동일한 사건 시간을 지시하고 있다.

(60) A : Thanks for calling Happy Travel. Can I help you?

B : Hello,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the Taj Mahal Tour.

A : I see. When would you like to leave?

B : Is there a flight available on Tuesday?

A : Let me check. I'm sorry, but all the seats are booked.
What about Saturday?

B : Saturday is fine. I'll leave **then**.

(A)

다음 예문은 연속적인 사건, 시간의 기능을 하는 *then*의 예이다. M과 W는 창덕궁에 가는 길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M은 질문하자 W는 서울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여 세 정거장을 더 가서 종로 3가에서 내리라고 한다. M은 그 다음 계속해서 가는 법에 대하여 질문한다. W는 *then*을 사용하여 3호선으로 환승하여 안국역에서 내리라고 답한다.

(61) M : Excuse me, how can I get to Changdeok Palace?

W : Let me see. Now we're at Seoul Station. Take line number 1 and go for three stops. **Then** get off at Jongno 3-ga

M : And then?

W : **Then** transfer to line number 3 and get off at Anguk Station. It's only one stop from Jongno 3-ga.

M: I see. Which exit should I take for Changdeok Palace?

W: Get out at exit number 3. You can't miss it.

M: Thank you so much.

(B)

또한 아래의 예처럼 B와 G가 문화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요청의 기능을 하는 *then*을 살펴볼 수 있다. B는 태국여행을 하고 돌아왔고, 다른 문화에도 관심이 있다는 표시를 했다. G는 B의 말에 문화를 좋아한다는 전제하에 다문화축제에도 갈 의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 B : I just got back from Thailand. Their culture is amazing.

G : Great. Are you interested in other cultures as well?

B : Of course. After my trip, you can call me the 'culture king.'

G : **Then** do you want to go to the multicultural festival at my school tomorrow?

B: You bet. Count me in.

(B)

4.3.10 y'know

*Y'know*의 기능별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표 17> Y'know의 기능 별 빈도수

y'know				
	① 정보의 공유 확인	② 정보의 공유전제	③ 상투적인 문구	합계
A	-	-	1	1
A-I	-	-	-	0
B	-	2	1	3
B-I	-	4	1	5
C	-	-	-	0
C-I	-	-	-	0
합계	0	6	3	9

위의 표에서 처럼 *y'know*는 교과서 대화 예문에서 정보의 공유 전제 기능이

6회, 상투적인 문구가 3회로 총 9회 발생하였으며 정보의 공유 확인은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다음 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용되는 *y'know*이다. W와 M은 미래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W는 M에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M은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낙심한다. 여기에서 M은 *y'know*를 사용하여 이미 M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였던 것을 W가 안다는 것에 전제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

(72) W : Hey, Jimin. What's wrong?

M : **You know**, My dream is to become the president of my country. But I don't think it will come true.

W : Don't say that. Just believe in yourself.

M : So you don't think I should give up my dream?

W : Of course not. Good luck.

(B- I)

또한 아래는 일반적인 사실이나 상투적인 문구 앞에 *y'know*가 사용된 예이다. 아래의 예에서 M은 자신이 영화배우가 꿈인데, 자신이 연기를 못하기 때문에 영화배우가 되지 못할까봐 매우 두려워한다. W는 그를 설득하기 위하여, '꿈은 이루어진다'는 상투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자신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63) W : Chris, what's your dream in life?
M : Promise not to laugh?
W : I promise I won't. Really.
M : Okay, my dream is to become a famous movie star.
W : That's a great dream. Why would anyone laugh at that?
M : Well, my brother says that I'm not good at acting.
W : That's not true! You were great in last year's school
play.
M : So you don't think I should give up my dream?
W : Of course not. Just believe in yourself.
M : Thanks, Minji. I feel a lot better.
W : **You know**, having a dream helps you reach for the
stars.
M : Yeah. Do you want my autograph? Ha ha. It may be
worth a lot someday.

(B)

4.3.11 I mean

*I mean*의 기능별 빈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8> I mean의 기능별 빈도수

I mean

	① 선행담화의 개념 확장	② 선행담화의 의도에 대한 설명	③ 화자의 어조 (speaker key)	④ 자기 교정	합계
A	-	-	-	-	0
A-I	-	-	-	-	0
B	-	1	-	-	1
B-I	-	-	-	-	0
C	-	-	-	-	0
C-I	-	-	-	-	0
합계	0	1	0	0	1

위의 표에서처럼 담화표지어로서의 *I mean*은 B교과서에서 단 1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I mean*이 선행담화의 의도(intention)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사용된 예이다. W는 영화주인공 Alex Kim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M이 그를 잘 모르자 다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며 질문을 하고 있다.

(64) W : Do you know Alex Kim?

M : You mean the movie star from the movie “Happy Days?”

W : No, that’s Alex Dalton. **I mean** the one from the movie
“Little Boys”

M : Oh, now I know who you’ re talking about.

(B)

4.3.12 기타

지금까지 대화 예문에서 사용된 열한개의 담화표지어의 기능과 그 빈도수를 살펴보았는데 *y’know*와 *I mean*과 같은 말뭉치로 된 담화 표지어의 빈도수가

단일 언어로 된 담화표지어 빈도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O'keeffe(2007)는 담화표지어 기능을 하는 말뭉치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가 *you know, I mean, and then, but I mean, You know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 mean* 의 순위로 조사 되어졌다. 교과서 말뭉치들을 분석한 결과 *you know*는 교과서에서 9회, *I mean*은 1회만 사용이 되었다.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뭉치 *you know, you know what, you know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 mean, I mean, and then*의 빈도수를 영어교과서 대화예문에서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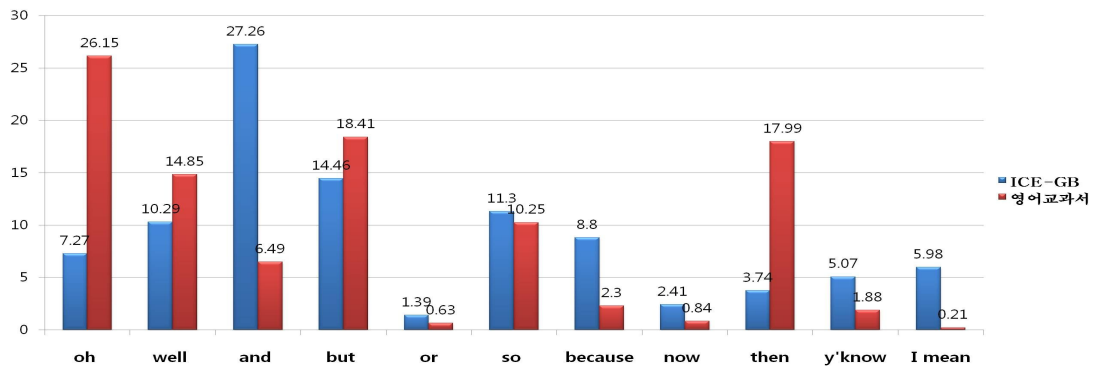
<표 19> 담화 표지어가 들어간 말뭉치 빈도수

말뭉치								
	you know	you know what	you know what I mean	do you know what I mean	I mean	but I mean	and then	합계
A	1	3	-	-	-	-	3	7
A-I	-	5	-	-	-	-	9	14
B	3	-	-	-	1	-	-	4
B-I	5	3	-	-	-	-	-	8
C	-	-	-	-	-	-	-	0
C-I	-	3	-	-	-	-	-	3
합계	9	14	0	0	1	0	12	36

위에 표에서처럼 *you know what* 말뭉치 사용이 14회로 9회 사용된 *you know*보다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고, *and then* 도 12회 사용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4.4 ICE-GB와 영어교과서의 담화표지어 빈도수 비교

ICE-GB와 영어교과서의 담화 표지어 빈도수를 비교해 본 결과 아래 그래프와 같았는데, *Oh, well, but, then*은 영어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and, or, so, because, now, y'know, I mean*은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4.5 담화표지어의 위치

담화표지어의 위치를 문두, 문중, 문미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0> 영어교과서 별 담화표지어의 위치

	문두	문중	문미	합계
oh	125	-	-	125
well	71	-	-	71
and	31	-	-	31
but	88	-	-	88
or	2	1	-	3
so	49	9	-	58

because	11	-	-	11
now	4	-	-	4
then	76	4	6	86
you know	9	-	-	9
I mean	1	-	-	1
합계(%)	458(96)	14(3)	6(1)	478(100)

담화표지어는 대부분 문두에서 발생하였고, 문중, 문미의 순서로 발생했다. 열한개의 담화표지어 중 *oh, well, and, but, because, now, you know, I mean*, 여덟개의 담화표지어는 모두 문두에 위치하였으며, 문두와 문중 모두에 위치하는 담화표지어는 *or*와 *then*이 있었다. 유일하게 문두, 문중, 문미 모두 위치했던 담화표지어로는 *then*이 있었다. 앞으로 문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담화표지어 *oh*, 문두, 문중에 위치한 *but*, 문두, 문중, 문미 모두에 위치한 *then*을 중심으로 한 대화문을 기능과 함께 살펴보겠다.

4.5.1 문두에 위치하는 담화표지어

- (65) W : Hey, you look serious. What's up?
M : I'm reading a newspaper article about global warming.
W : **Oh**, really? What does it say?
M : According to this article, many coastal areas may be
underwater by 2050 due to sea level rises.
W : That's really scary!

(A)

위의 대화는 남자가 신문기사 중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 상황이고, 여자는 그 기사의 정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oh*가 문두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6) W : Can I hand in this form here?

M : Yes. Thank you. (pause) Excuse me, can you come back?

W : What's the matter?

M : I'm afraid you've made a mistake. You forgot to sign the form.

W : **Oh**, I didn't notice that. Thank you for telling me.

M : No problem.

(C)

위의 대화에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에도 문두에 *oh*가 사용이 된다. W는 양식에 서명하는 것을 놓쳤다가 M이 요청을 하자, W가 그 정보에 응하면서 *oh*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Evison과 McCarthy(2010)가 실시한 말차례 시작어를 조사한 코퍼스 결과에서도 *oh*는 *yeah*, *mm*다음으로 사용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oh*이외에도 *and*, *well*, *but*, *so*으로 담화표지어가 다섯 개나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코퍼스에서 사용된 말차례 시작어 빈도수

말차례 시작어	빈도수
yeah	15049
mm	7751
oh	6900
and	6048
I	6154
no	4763
[laugh]	3872
well	3847
yes	2995
but	2476
you	2267
it's	2118
so	2042
it	1434
what	1289
right	1253
the	1127
that's	1067
erm	924
합계	73376

(McCarthy 2010 : 7)

이와 같이 말차례 시작어 선호도는 대화에서 두 명 이상의 화자가 등장할 때 대화의 흐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담화 속의 말차례를 완성하기 위해 후속담화에서 강력히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4.5.2 문두, 문중에 위치하는 담화표지어

다음 예에서 *but*이 절의 첫 부분(b)과 중간 부분(a)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7) M : I think first prize should go to Minsu.

W : What makes you think so?

M : His topic was very interesting.

W : I agree, **but(a)** Susie's topic was also very good.

M : Minsu looked confident and had natural gestures.

W : **But(b)** he sometimes looked at his notes.

M : Maybe he looked at his paper but I'm sure he
memorized all of his speech.

W: Okay. Let's see what the judges say.

(C)

M과 W는 말하기 대회에서 누가 우승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M과 W는 우승자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름에 *but*을 사용하고 있다. 즉, 문두와 문중에 나온 *but*은 모두 선행 정보에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4.5.3 문두, 문중, 문미에 모두 위치하는 담화표지어

유일하게 문두, 문중, 문미 모두 위치했던 담화표지어로는 *then*이 있었다. 다

음의 예 (68), (69), (70)은 차례로 *then*이 문두, 문중, 문미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다.

(68) D : Mom, I want to stay at home on Saturday evening.

M : Why? You're supposed to visit Grandpa's house.

D : I know, but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M : Oh, Grandpa wants to see you.

D : Yeah, but I still have a lot of work to do.

M : **Then**, how about taking your homework with you?

D : All right, Mom.

(C)

(69) W : Good afternoon. May I take your order?

M : Well, there are so many dishes that it's hard to choose one.

W : Can I make a suggestion?

M : That would be great!

W : Why don't you try our roasted chicken?

M : Hmm ... I don't like chicken.

W : Well, **then** how about seafood spaghetti? It comes with a fresh salad.

M : Great! I'll have that.

W : OK! I'll be back soon with your meal.

(A)

(70) A : Jenny, do you remember the Christmas concert last
December?

B : Of cour : We played the violin in front of many
people.

A : Yeah, It was a great success. Everybody was talking
about the concert **then**.

B : Sure. Our music teacher, Ms. Brown did a great job
putting the concert together.

A : Right. It couldn't have been a success without her.

(B- I)

위의 예문 (68), (69)처럼 문두, 문중, 문미에 놓여 선행정보 확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예문(70)처럼 동일한 사건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68)에서 D는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기로 했었지만 숙제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숙제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 허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then*을 사용하여 선행정보를 확인하고, 다른 대안으로 숙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69)에서도 마찬가지로 M과 W는 식사 선택 중에 W가 메뉴 선택으로 구운 닭을 권하자, M은 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답을 하게 되는데, W는 선행정보를 근거로 하여 다른 대안으로 *then*을 사용하여 해산물 스파게티를 추천하고 있다. 또한 (70) 예문처럼 작년 크리스마스

스마스를 지시하는 동일 시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문미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5장 결론 및 제언

담화표지어는 화자 자신의 부족한 언어능력을 보충하기도 하고, 의도된 의미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의사소통의 상호작용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이에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목표로 하는 영어교육현장에서 담화표지어 교수는 의사소통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담화표지어의 정의와 기능을 자세히 알아보고, 영어교육에 있어서 담화표지어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본 후 7차 개정 고등 영어교과서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어가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기능을 주로 담고 있으며, 어떤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Schiffrin(1987)이 분류한 열한가지 담화표지어 *oh, well, and, but, or, so, because, now, then, y'know, I mean*를 분석기준으로 하여 영어교과서에서 사용된 담화표지어 빈도수를 분석하였는데 *oh, but, then, well, so, and, because, y'know, now, or, I mean*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그 중 *oh, then, but, well, so, and*는 최고 빈도수가 125회, 최저 빈도수가 31회 이상으로 다른 담화표지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지만 *because, y'know, now, or, I mean*은 빈도수가 낮은 편이어서 충분한 빈도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그리고 *y'know*와 *I mean*과 같이 말뭉치로된 담화표지어의 사용은 다른 담화표지어들보다 특히 낮은 빈도수를 보여주었는데 *you know*는 9회 사용이 되었고, *I mean*은 단 1회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정형화된 표현인 *you know what* 말뭉치 사용이 14회로 9회 사용된 *you know*보다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생활회화에서 사용되는 담화표지어의 빈도수와 영어교과

서의 담화표지어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oh, well, but, then*은 영어교과서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이 된 반면 *and, or, so, because, now, y'know, I mean*은 실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Shiffrin(1987)이 제시한 담화표지어 이외에도 *yeah, like, Um, you know what*등이 발견되었다.

담화표지어의 기능별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oh, so, because, and, but, then, y'know*의 기능은 대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지만 *well, or, now, I mean*은 다양한 기능 분류에도 불구하고 한 기능에만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well*과 같은 경우는 71회 모두 선행담화에 불충한 응답 상황에서 발생한 반면 질문 회복 요청, 바꾸어 말하기, 오류수정, 인용 등은 한회도 발생하지 않았다. *Or*은 발생한 3회 모두 포괄적 선택 기능으로 사용되었고, 비동의와 자신의 주장 설명은 발생하지 않았다. *Now*는 화자의 입장변화에서 모두 4회 발생했고 비교, 목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I mean*은 선행담화 의도에 대한 설명하는 상황에서 단 한회만 사용되고, 선행담화의 개념확장, 화자의 어조, 자기 교정 기능은 발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담화표지어의 발생 위치를 분석한 결과 담화표지어는 문두, 문중, 문미 순으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열한개의 담화표지어 중 *oh, well, and, but, because, now, you know, I mean* 여덟 개의 담화표지어는 모두 문두에 위치하였고, *or*과 *then*은 문두와 문중에 발생하였으며 유일하게 *then*이 문미에 사용되었다. 담화표지어의 대부분이 문두에 위치하는 이유는 대화 예문이 간단한 인접쌍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선행담화 속의 말차례를 완성하기 위해 후속담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교과서에 나타난 담화표지어를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담화표지어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고, 특히 기능이 편중되어 사용이 되고 있어 '주의 얻기, 화제를 시작하고 종결하기, 회피하기, 끼어들기, 수정하기, 정보 요청하기' 등의 실제적인 의사소통전략 학습에 부족함이 있었다. 교과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교실의 회화 학습에서 교과서의 예문은 절대적으로 중요함으로 영어교과서가 담화표지어의 다양한 종류와 기능을 포함한 예문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도움을 주어야겠다.

참고 문헌

- 구정희. (1995). 교과서 대화 예문의 담화표지에 관한 분석. 석사 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주영. (2008). 고등학생 영어 대화와 회화 교과서에 나타나는 담화표지어 연구. 석사 학위 논문.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주. (2007).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사용된 담화 표지 연구. 석사 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두분. (1999). 「영어 교재론 개관」. 한국 문화사.
- 이병민, 박기화, 임인재, 문영인, 김영숙, 이주연, 박용호, Christian H.Kim. (2009) *High School English*. 두산동아(주).
- 이인기, 윤승남, 남조우, 정용호, Thomas Orr.(2009) *High School English* 천재교육(주).
- 이찬승, 황우연, 안세정, 구은영, 김진홍, 이종은(2009) *High School English* 능률교육(주).
- 진경애. (2007) 멀티미디어 전자영어 학습 교재 개발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Oxford : Blackwell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White Plains, NY : Longman.
- Brown, H. D.(2001) *Teaching by principles* (2nd ed).White Plains,

NY: Longman.

Nunan, D. (2003). *Practical English Language Teaching*. McGrawHill.

Fraser, B. (1993). Discourse Markers Across Language. *Pragmatics and Language Learning*, Vol.4.

Jeremy, H. (2007) *How to teach English*. Pearson Longman.

Loretta, F. & Ronald, C. (2007). Discourse Markers and Spoken English. *Applied Linguistics* 28/3

McCarthy, M. (2010). Spoken Fluency Revisited. *English Profile Journal*. 1(1).

O'keeffe, A., McCarthy, M, & Carter, R. (2007). From corpus to classro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An Analysis of Discourse Markers In Dialogues Used in High School Textbooks and Activity books.

Soo-jung, Lee

Majoring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Discourse markers are linguistic elements which sequentially link earlier and later dialogue information. These elements play a pivotal role in English learners' linguistic competence in that they help learners interact successfully and increase comprehension.

Public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currently focuses on fluency through the development of meaningful communicative language practices, compared to the emphasis on grammar-translation education in the past. For this reason, class instruction on discourse markers would be highly successful for developing students'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is thesis, based on Schiffrin(1987)'s classification of discourse

markers including *oh, well, and, but, or, so, because, now, then, y'know,* and *I mean,* the frequency, functions, and locations of discourse markers were examined. For the study, dialogues from three high school textbooks and three activity books were chos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frequency, discourse markers such as *y'know, I mean, or, now, because* appears infrequency. Additionally, the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s are limited. For example, the discourse markers *well* is used for only one out of six possible functions. This reflects that not enough discourse markers are used in English textbooks and activity books, and their range of functions is insufficient. Lastly, most of discourse markers, with exceptions of *or, so, and then,* are located at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s to link earlier and later dialogue information.

According to this study, students should be instructed, explicitly or implicitly, on the use of discourse markers in order to build communicative competence, as discourse markers enhance learners' fluency and lead to m to successful interaction. Further, learners can learn to understand the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s and how to use them in an appropriate way by reading authentic dialogues and doing various activities.